

제 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평가 문서들

아래.구.

열

음... 무엇을 했나..
행사 자체에 대해 평가하자면
트라이브 8도 토론할 만한 논점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기부들도 영화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토론을 준비하긴 힘들었지만 말이죠..
퍼포먼스나..주유신씨 강연화, 에로피고 상영은 참..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드렉킹쇼는 리허설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날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천막이라도 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주유신씨 강연회는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유신씨의 역량으로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섹슈얼리티 문화제의 기조에 맞는 솔직한 이야기들도 오간 자리였구요.
그리고 나의 소감은..
총여 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큰 행사였는데
역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좀 더 정성을 쏟아야 할 텐데
그러기엔 요즘이 너무 정신 없는 나날이라.. 잠수나 타고 말지요..ㅠㅠ홀췌..
그리고 또 하나, 문화제에 온 시간을 동안 반성폭력자치규약 만드는 데 쏟아야 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들어서 내러오는 자치규약 말고, 동아리별로 여학우들의 경험을 실사하고 모아낸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이 한회의 섹슈얼리티 문화제보다 더 많은 과정을 학내 자치단위들에 던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동안 반성폭력자치규약 마련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김부희와 문화제 평가 모임 못가서 정말 죄송..연락조차 안 받아서 더욱 죄송..

몸

준비- 나중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행했던 듯, 그 주에 숙제가 많아서 내내 포스터를 붙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실재로 포스터를 많이 붙이지 못했다. 각자각 덕분에 생각보다 신경을 덜 쓴 듯, 재미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다지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행하는지 납득할만한 내부 세미나 정도는 있는 게 좋았을 것 같다. 나로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킥할려 가거나 무의도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전화를 계속 받고 받을 수 없었다. 바보인가.

선전-다들 이 정도면 잘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 포스터는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 해서 붙이기 어려웠으나..자료집에 트랙킹 이야기 안 들어간 건 의외. (모르고 있었다) 퍼피는 눈에 잘 안 띄었다. 색깔 때문인가..

자보전- 원래 그런건가? 좀 허름해 보이고..열에 포스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잘 들었을 것 같다.

드렉킹 퍼포먼스-날짜까지 미뤄진 최악의 행사. 나로서는 그 과정과 과정을 알 수가 없으니 결과만 봤을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목요일에는 역시 리허설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중간이 뭔가 끊기기도 하고..무엇보다 왜 계속 마이크를 안 쓰고 안 들리는 생 목소리를 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 내용 자체는 재밌었지만 제대로 전달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00% 호기심으로' 묻고 싶다.

2. 본행사

①자보전은 괜찮았던 것 같다. 자료집 내용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강도 근처를 왔다갔다 하면서 자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몇 번 목격하기도 하였고, 뭐,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을 듯 하다.

②첫째날 페미노스 공연과 트라이브8 상영. B09에 미리 가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두근두근 아쉽다. 약간은 방만했던 것 같다-물론 그전날 나비 퍼포먼스를 준비하려고 마음 관통 먹은 채 학교 왔었다가 '말해서' 열이 빠져버렸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적받아 마땅하다. 특히나 트라이브8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예상보다 제 많았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볼 때, 강의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점은 뼈아프다. 참, 또다른 아쉬움이라면 영화 상영할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 아아 B09였다면 덜 신경쓰였으리까? 이런 상황에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어야 할지는. 못나가게 막을 수도 없고.

③둘째날 에로피고 상영과 주유신씨 강연. 솔직히 그날 5시 이후의 시간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황당했다. 만약 미리 테이블을 붙여보지 않았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지...음. 생각만 해도 아쉽다. 어쨌든 여문기획은 대실망이었지만 그래도 어쨌어쨌 주유신선생님을 통해 다른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었다. 물론 욕망을 영화화하기를 보러 왔다가 그냥 갔던 몇몇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다시 화가 치밀어오르지만...아무튼 주유신선생님께서는 참 귀찮고 감사하다;;

④셋째날 나비 퍼포먼스. 나비가 너무 바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나 싶다. 첫째날로 계획되었던 행사를 마지막날로 옮기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너무 촉박했다. 퍼포먼스 당시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았고...준비되지 않은 점이 많았고, 나비가 수고 많이 하였다는 점은 백번 인정하나, 부족했던 행사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정말, 제대로 현장 리허설을 한번만 하였더라도 훨씬 좋은 내용의 퍼포먼스가 되었을텐데...아쉽다.

3.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 하면서 농담처럼 계속 했던 말이 "끝나고 곳까지" "고사지내자" 였던 것 같다. 정말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유난히 태클이 많았었던 것 같다. 준비하는 주체들이 부족했던 점도 분명 있었었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측면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 부족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5월 축전의 그 대대적인 선전과 더불어 빠른 시간도 있었고, PC 때 연영회에서 갑자기 나타나 화를 냈었던 것. 여문기획의 대배신. 유원준준 준비로 인한 나비의 시간부족 등등. 내부적인 문제였던 확실히 지적하고 다음번에 그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 조금은 나아지려만,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내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만 행사를 꾸밀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처럼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결코 순탄치 않았던 섹슈얼리티 문화제였다. 부디 다음 행사때는 조금더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함께 수고한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페미노스- 모트했다. 인연이 없나, 제대로 본 날이 없다. 마지막에 봤을 때는 조명이 좀 의심스러웠지만..

트라이브8- 역시 먼저 가서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그리고 장소를 더 재빨리 옮겨야.

에로피고와 강연- 역시 욕망을 영화화하기를 미리 물어봤어야. 여권이 안됐나. 돈은 주는 건가? 사람들이 제복보다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좀 안타까웠다. 그나마 그 전날의 실수가 없었던 만회하지 못할 뻔 했다는 생각도. 그래도 그러저럭 잘 끝났다. 강연도 재밌었고..다만 강연이 너무 격식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모트했다. 내가 바빴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다음에는 나도 뭔가를 알고 하고 싶다는 생각.

늘

1. 준비작업

⑤ '성교육 행사와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자'고 계획했던 작년의 기획 의도가 그래도 그러저럭 잘 나타나게 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예전에 했던 기획회의때는 그야말로 '기획회의'였기 때문에 좀 의미만 감이 없잖았는데, 기획회의를 여러 번 함께 하면서 상을 잡아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았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개인적으로-행사 소재목이었던 Design womes's desire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홍, 비웃고 싶은 자 마음껏 비웃어라. 난 좋았다고 뭐-:-:~})

⑥ 포스터는 정말 잘나온것같다. 그림을 제공해주신 김현미선생님께는 매우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표현해야 할것같다. 일탈 언니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그렇지만 양이 좀 많았다는 생각은 든다. 한층원 친구들의 5월 축전 포스터가 전교에 도배됨으로 인해서 붙일 자리 찾는 게 좀 어렵긴 했었고 그 후에도 남반독수리와 오델로인지 오셀로인지 하는 이런저런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여기저기 붙어서 많이 못 붙인 것도 있지만 사실 도배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니까...((하지만 정말 도배 해보고 싶었다ㅠㅠ))

포스터의 small size로 나왔던 리플렛은 많이 뿌려 다행이긴 하였으나, 솔직히 리플렛 뿌리던 기간이 빠른군 한참 날뛰던 기간이라-_- 뿌리는것이 너무 피로했다-_-ㅠ: 그냥 만사가 볼도보기 싫었던 때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 같다. ((원래 재물선전전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물 선전전 계속 쫓 나오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며 사죄합니다.

⑦자료집 글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트랙킹 소개글이 빠져서 아쉬웠다. 또 표지 안쪽이 텅 비어 있어서 아까웠다. 뒤라도 채워넣을것을.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자료집 글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자료집이 떠어나갔다는 점은 아쉽다. 글 마감 제때 막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것 같다. 자보도 생각보다 쉽게 준비된 것 같다.

⑧PC는 나름대로 많이 썼었는데, 역시나 5월 축전으로 인해 온학교가 도배되어서 제대로 걸지 못했던 것 같다. PC 팔때도 5월 축전 PC 쓰는 한층원 친구들이 하도 많이 계속 눈치챈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⑨어쨌든, 선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포스터 도배'의 효율성에 대

여광

아. 올랐다.

기획 도중 썩 바뀌었다...

포토노그래피랑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여성 욕망 쪽에 중심을 두기로 하였다. 하다보니 중간중간 녹아나는 것 같기도 하다.

기획회의를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회의 시간 맞추는 것이 힘들어서 대충한 것 같다. 말할까... 공부도 좀 더 허구 고민도 좀 더 했어야 하는 것 같다. 결국 부처 단순한 내용이 된 것 같아 약간은 아쉽다.

선전은 참 잘했다. 자료집이 애매하게 남았으나, 퍼피라는 홀몸했다고본다. 아싸! 포스터 도배도 잘하고, 5월축전인지 먼지가 없었으면 더 잘 부웠을텐데...

자보전도 시간을 두고 내용을 더 고민해서 했어야하지 않았을까한다. 자료집 내용 그대로 간 것은 위워서 좋았다만, 아쉽다.

나머지 행사들은 다 개고생이었다.

별명명 강의실에서 음향이 안나오고, 테이블이 잘못오구, 퍼포머가 날차도 연기하고... 양분 써왔던 나날들이었다.

트라이브8는 정말 작은강의실이라 아쉽다. 사람도 많았는데... 영화 끝나고 영화평이라도 보내주면 테이스트에 실렸다는 말을 할걸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주유신씨 강연은 음...전혀 어떤내용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서 불안했다.-:-
원래 의도한 내용과도 약간 어긋나있기도 하고... T T

기타 흘러서 생각이 안남

제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특. 평가문서

▼ 기획

기획이 제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회의도 많이 했다.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정세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 주제를 선택해서 하는 행사라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기획 전이나 기획 이후 주제 관련해서 세미나를 몇 차례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자치 단체였으면 좀 여유 있게 차근차근 준비했을 텐데, 일 많은 총여보나 이리기가 힘들었다. 여러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일이 많았고. 또 박순군이 지랄해서 힘들기도 했다. 내용에 대한 고민은 이미 작년에 했던 것들이라 개인적으로 특별히 새롭거나 고민되는 것은 없던 것 같다. 물론 준비를 하면서 약간 정리된 것은 있다.

▼ 선전

선전물로 리플렛, 포스터, 자료집을 제작했다. 리플렛과 포스터는 행사 일주일전에 나왔다, 자료집은 행사가 시작되고 화요일 오후에 나왔다.

- 포스터(벨 크기, 300부)
처음에 200부 생각했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300부 찍었는데 좀 남았다. 포스터를 일주일 전부터 비교적 성실히 많이 붙였는데도 이렇게 남은 걸보니 담에는 좀 적게 제작해도 될 것 같다.(특히 행사장에 별 필요 없이 많이 붙인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한총련 출범식 하느라 포스터 붙일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약간 어려운 점이었다. 건물별로 담장을 경계하기도 했으나 한번에 전부 다 돌면서 붙이기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스터에 있어서 겹 좋은 것은 날 잡아서 뭉땅 들고 다니면서 붙이는 거 같다. '어디 몇부 누구' 이런거 정해놔도 별 소용없다.(누구는 이걸 가지고 오거나 나눠주지 않았다고 후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현실이다. 암)

- 리플렛(A4, 1000부)
돈이 좀 들긴 했으나 거의 다 뿌려서 아깝지는 않다. 특히 수, 금, 월 6차에 걸친 채플 선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침이라 나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와서 뿌려서 좋았다.(나옴으로 해놓고 어진 사람은 반성하길..) 채플 선전전에는 두 명이던 충분한 것 같으니깐 사람을 나눠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월요일은 늘, 여망, 수요일은 뭉, 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몇 사람이 계속 나오는 일도 없을 테니까.

- 자료집(행년이 사이즈, 500부)
구체적인 내용 전달 없이 영화 틀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쉬워서 급하게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배포를 잘 하지 못했다. 수량이 너무 적다보니 리플렛 뿌리듯이 나눠주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행사 때 500명 이상이 온건 아니니까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행사 때도 행사 자체 준비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었기 때문에 자료집 뿌릴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트랙킹 퍼포먼스 하기 전에 좀 많이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했다.

- 영화 소개 선전물(A4, ?)
트라이브8과 육망을 영화화하기 영화 소개 선전물을 복사해서 강의실 앞이나 건물 통로, 화장실 등에 붙였다. 개별 출력하지 않고 한번에 복사해놓고 나눠서 붙였다.

- 피씨(9개)
행사 전에 피씨를 6개 걸었는데, 5월 축전과 한총련 출범식 피씨들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다. 이거 밑에 건 다음에 백양로 쪽에 붙이려고 했던 트랙킹 관련 피씨를 중도 학관 사이에 걸었다. 행사 전체에 관한 피씨가 행사주에도 걸려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일요일에 미리 떼어 놓으려고 총여실에 칼 가 지러 갔다가 내려오니 사라지고 난 뒤였다. 담에는 필히 토요일 밤에 떼어 놓고 재촬영하자.

총합 평가 : 아무튼 선전 전달 열심히 했다.

▼ 행사별 평가

문화제 프로그램으로 영화 두개 상영, 강연 하나, 퍼포먼스/공연 두개, 자보전

- 자보전
행사전 일요일에 나와서 만들었다. 자료집 글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그런지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 페미언스 공연

섭의 자체가 특별히 총여에서 준비할 거 없이 이루어졌다. 수업 듣느라 못봐서 모르겠다.

- 트라이브 8

위당관B09가 달팽이였다. 강의실 변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도 B05를 쓸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문제가 파악됐을 때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엠트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엠트를 설치해서 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다.

- 육망을 영화화하기

전날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었다. 한글 자막 없는 비디오가 왔다.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고 강연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강연자는 이미 섭의 끝난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주유신 선생님 아니었으면 행사 취소하고 정말 큰일 날 뻔 했다. 영화가 '에로피고'로 변경되었고 강연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 트랙킹 퍼포먼스

아무튼 나비랑 퍼포먼스를 해서 별 문제없이 준비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네 번째 같이 하는 퍼포먼스인데 역시나다. 더 이상 할말 없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퍼포먼스 안하리..

▼ 보충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험을 쌓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비디오 음향 출력 케이블 연결하는 거나 엠트 소리 울리는 거, 돌들이 연결 등. 트랙킹 퍼포먼스 할 때 스피커를 마이크 뒤로 옮겨서 공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볼륨을 크게 해놔요면 귀 찢어지는 소리가 났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돌들이 연결 체크를 안해놔서 도중에 전원이 끊어지기도 했다. 길에서는 사람 발에 걸려서 빠지기도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화를 상영하거나 공연을 할 때는 언제나 기기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

1차, 2차